

대한정신약물학회 회보

THE KOREAN COLLEGE OF NEUROPSYCHOPHARMACOLOGY NEWSLETTER

발행인: 윤진상 편집인: 한창수 발행처: 대한정신약물학회 학회사무실: 150-73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1-3 라이프 오피스텔 1003호
Tel: 02)784-2742 Fax: 02)784-5542 e-mail: secretariat@kcnp.or.kr 홈페이지: http://www.kcnp.or.kr
제작: (주)엠엘커뮤니케이션 전화: 02)717-5511(대) Fax: 02)717-5515

이사장 인사말

존경하는 대한정신약물학회 회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에 학회를 위해 묵묵히 일해 오신 여러 이사님과 회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학회의 자존감을 다시 한 번 느껴봅니다. 춘계 및 추계 학술대회는 차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국문 및 영문 학술지는 정시에 출간되었습니다. 홍콩 CINP 지원사업도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학회의 주요 행사와 사업이 순조롭게 실행되었음은 우리 학회가 그만큼 안정되고 성숙되었음을 반영합니다. 여기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인 의식이 근간을 이루고 있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쉬움도 남습니다. 예컨대, 회원 상호간 허물없는 우의를 다질 수 있는 하계 심포지움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런 아쉬움은 예전과 달리 학회의 활성을 위축시키는 환경적인 변화에도 기인합니다. 회원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가시적 성과를 이루지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예컨대, 학회소식지의 정시 발간, CME 재개, 회원 확대와 개원의를 위한 노력 등입니다. 올 한 해는 이런 아쉬운 부분이 구체적 실행으로 옮겨지도록 함께 고민해야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학회가 큰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2011년 9월 23(금)-24(토)일 양일간 열리는 제2회 아시아정신약물학회(AsCNP)를 우리 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우리 학회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아시아에서 선도적 역할을 시험하는 행사입니다. 모든 회원이 협심한다면 성공적 개최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대한정신약물학회 회원 여러분.

우리 학회의 품격은 우리 회원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분과학회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가 더욱 활력이 넘치고 발전을 거듭하는 학회가 되도록, 올 한 해도 우리의 역량을 아낌 없이 발휘해 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한정신약물학회 이사장

윤진상 올림



회원 등 정

[신입회원]

정회원

- **이태영(국립나주병원)**
주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501
전화 : 061-330-4183, 팩스 : 061-330-4150
E-mail : leetaey@gmail.com
- **이정식(용인정신병원)**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4
전화 : 031-288-0218, 팩스 : 031-288-0184
E-mail : jslee@simri.pe.kr
- **이근창(합천고려병원)**
주소 : 경남 합천군 대양면 정양리 587-3
전화 : 055-934-1101, 팩스 : 055-934-1103
E-mail : godsend@hanafos.com
- **정일진(새롬NL정신과의원)**
주소 : 부산 해운대구 우1동 592-13 장산빌딩
전화 : 051-744-4852, 팩스 : 051-744-4853
E-mail : jij0215@chol.com
- **성덕규(서울신경정신과)**
주소 : 인천시 남동구 구월1동 1463-2
로테오프라자 501호
전화 : 032-433-5335, 팩스 : 032-432-5336
E-mail : sdkpsy@chol.com
- **배승민(가천의대 길병원)**
주소 : 인천시 남동구 구월1동 1144-15
전화 : 032-423-1375, 팩스 : 032-423-1375
E-mail : manitch@paran.com

정회원 및 평생회원

- **이상민(꽃동네인곡자애병원)**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인곡리 산1-45
전화 : 043-879-0301, 팩스 : 043-877-7838
E-mail : mini7744@hanmail.net
- **정봉주(양산병원)**
주소 : 경남 양산시 주전동 347-1
전화 : 055-379-0215, 팩스 : 055-389-1230
E-mail : jeubj@hanmail.net
- **노대영(세브란스정신건강병원)**
주소 :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696-6
전화 : 031-760-9408, 팩스 : 031-764-8662
E-mail : omydoc@naver.com

• 김정옥(고양정신병원)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294-2번지
전화 : 031-969-0885, 팩스 : 031-962-2325
E-mail : ipsychi@naver.com

• 성승모(성동병원)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동 1404-2
전화 : 053-325-0009, 팩스 : 053-322-3921
E-mail : smsmd@unitel.co.kr

• 소민아(국립서울병원)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중곡3동 30-1
전화 : 02-2204-0287, 팩스 : 02-452-0162
E-mail : soho27@gmail.com

• 김효원(서울아산병원)

주소 : 서울시 송파구 풍납2동 388-1
전화 : 02-3010-3414, 팩스 : 02-485-8381
E-mail : shingubi@amc.seoul.kr

준회원

• 권순재(전북대병원)

주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34-18
전화 : 063-250-1380, 팩스 : 063-250-2175
E-mail : ksoonjae@yahoo.co.kr

특별회원

• 이경복(양천사랑마루요양원)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월1동 231-12 금성빌딩 3층
전화 : 02-2699-3275, 팩스 : 02-2699-3742
E-mail : ywcalkb@naver.com

[축하합니다]

• 박원명 부이사장(가톨릭의대)

2010년 6월 : 여의도성모병원 홍보위원장에 임명되었다.
2010년 7월 9(금)-10(토) :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개최된 제 3회 The Bipolar Education Training for Asia(BETA) 심포지움의 전체 chair를 맡았다.
2010년 10월 한국형 양극성 장애 약물치료 지침서 2010을 대표저자로 발간하였다.
2010년 11월 23(화) : 서울 취영루 중식당에서 개최된 대한우울·조울병학회 전체이사회에서 2011년-2013년 회기 차기 이사장으로 연임되었다.

• 유범희 평생회원(성균관대의대)

2010년 11월 12일 대한불안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



보령학술상)을 수상함.

2010년 11월 26일 일본 Tokyo에서 열린 일본중합병원 정신의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초청연자로 참석하여 <홍삼의 항스트레스 효과>에 대한 특강을 시행함.

• **이승환 국제이사(인제의대)**

국제 유명학술지에 논문 게재하였다. The loudness dependence of the auditory evoked potential (LDAEP) as a predictor of the response to escitalopram in patients with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Psychopharmacology (Berl). 2010 Nov 6. [Epub ahead of print]. 본 논문의 의의로서 사건유발전위 중 LDAEP가 뇌내 세로토닌 활성도와 관련되며, 불안장애 치료에서 SSRI 치료반응성을 예측하는 biological marker로 사용될 수 있음을 제시함.

• **정철호 평생회원(계명대의대)**

2009.2.1부터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2010.11월부터는 생물치료 정신의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 **채정호 간행이사(가톨릭의대)**

2010년 7월 20일 <채정호 교수의 남자수업> (스마트엔 비즈니스)를 출간하였으며, 8월 30일 <일, 그 야누스적 얼굴-직무스트레스 올바르게 이해하기> (계축문화사)를 공저로 출간하였다. 2010년 10월 22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SCI 등재 학술지에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게재된 논문의 임팩트 팩터로 심사하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백합학술상>을 수상하였다.

• **박영민 평생회원(인제의대)**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후 (Marquis Who's Who) 2011년 판(2011 Edition of Who's Who in the world)에 등재됨.

• **한창수 홍보이사(고려의대)**

2010년 10월 대한정신약물학회 오츠카 학술상을 수상하였으며, 2010년 11월 16일에 고려대학교 의료원 비전선포식 2020에서 교원학술상을 수상하였다. 2010년 12월에는 유명 출판사 Springer에서 <Embitterment: Societal, psychological, and clinical perspectives>를 공저로 출간함.

집행부소식 (상임위원회 및 각 위원회 소식)

총무위원회

1. 2011년 모임 예정사항

- 2011년 1월 14일(금) 동계심포지엄
- 2011년 3월 18일(금) 춘계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 2011년 6월24일(금) 하계연수교육(6월10일에서 최종 6월24일로 변경됨)
- 2011년 8월19-20일(금-토) 하계심포지엄(잠정)
- 2011년 9월23-24일(금-토) 아시아신경정신약물학회 학술대회 및 춘계학술대회
- 2011년 12월16일(금) 간행위원회 워크샵 및 전체 이사회

학술위원회

1. 2009년 학술대회 일정

[춘계학회]

대한정신약물학회는 2009년 3월 26일(목)~27일(금)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400여명이 넘는 회원이 참여하여 대성황을 이룬 가운데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를 성료하였다. 2일간 10주제의 심포지움, 4개의 ISS, 3개의 워크샵, 2개의 구연방, 1개의 Meet the Experts, 그리고 2개

의 Special Lecture, 1개의 Plenary Lecture, 포스터 전시 등을 운영하였다.

27편의 포스터가 발표되었으며 이중 안용민(서울의대)회원의 "The Role of Circadian Genes for the Therapeutic Response in Bipolar Disorder", 정범석(울지의대)회원의 "Reduced Task-Related Suppression During Semantic Encoding in Schizophrenia", 최수희(연세의대) 회원의 "정신분열병 환자에서의 예기쾌감과 완료쾌감을 통한 무쾌감 증의특성" 등 3편의 포스터가 우수포스터상을 수상하였다. 구연발표에서는 김세현(서울의대)회원이 "Dose-Dependent effect of Intracerebroventricular Injection of Ouabain on the Akt and GSK-3beta Signal Pathways in the Rat Brain"로 최우수구연상을, 서미경(인제의대) 회원이 "Differential Effects of Aripiprazole, Amisulpride and Haloperidol on BDNF-Mediated Signal Changes in SH-SY5Y Cells"로, 이희진(성가병원) 회원이 "What will Happen in Healthy Male Persons at Initial Stage by Smoking Cessation?"로 각각 우수구연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지난 1년간 대한정신약물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박원명(가톨릭의대) 회원이 "양극성 우울증에서 Quetiapine의 효능 : 다기관, 전향적, 개방형, 관찰 연구

(QUEEN Study)로, 박종익(강원대의대)회원이 “정신병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경도 및 중등도 주요우울증 환자의 인지기능 저하 및 항우울제 치료 후 인지기능 회복 양상에 관한 전향적 연구”로 각각 대정약 학술지 중앙문화의학 최우수논문상을, 이희제(강원대의대)회원이 “Neuronal Architecture of the Hippocampus and the Cerebral Cortex in Rats Experiencing Maternal Social Separation”로 영문 학술지 중앙문화의학 최우수논문상을, 박혜윤(서울의대) 전공의가 “정신분열병 환자에서 52주간의 Aripiprazole 치료가 사회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라는 논문으로 중앙문화의학 최우수 전공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특히 이날 민성길 전임이사장(연세의대)은 학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기념패를 수상하였다.

[추계학회]

대한정신약물학회는 2009년도 추계 학술대회를 2009년 9월 4일(금)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7개의 심포지움, 2개의 워크샵과 2개의 특강, 3개의 ISS 심포지움 그리고 공청회로 진행하였다.

오전 특강에서는 김창윤(울산의대)회원이 “From Clinical Studies to Clinical Application: Controlled Studies vs. Naturalistic Studies”에 대해, 권준수(서울의대)회원이 “Can Early Intervention for High-Risk Patients Prevent the Progress of Psychosis?”에 대해 강연하였다.

대한정신약물학회지 표지를 변경하고자 표지시안 poll 진행을 하였다.

이어 거행된 총회에서 배치운(가톨릭의대)회원은 정신약물학 분야에서의 학술적 기여를 인정받아 제8회 대한정신약물학회 오츠카 학술상을, 장재승(서울의대)회원은 제7회 오츠카 젊은 연구자상을 수상하였다.

2. 2010년 학술대회 일정

[춘계학회]



대한정신약물학회는 2010년 3월 18일(목)~19일(금)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400여명이 넘는 회원이 참여하여 대성황을 이룬 가운데 창립 25주년 기념 춘계 학술대회를 성료하였다. 2일간 10주제의 심포지움, 5개의 ISS, 6개의 워크샵, 2개의 구연방, 1개의 Plenary Symposium, 그리고 1개의 Special Lecture, 2개의 Plenary Lecture, 2개의

Educational Lecture, 포스터 전시 등을 운영하였다.

구연발표에서는 노대영(연세의대)회원이 “Preliminary Study of Deep Brain Stimulation for Refractory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Clinical Outcomes in Four Cases”로 최우수구연상을, 김경린(연세의대)회원이 “Altered Activation and Functional Connectivity of Fronto-Insula Cortex in Eating Disorder”로, 임용수(인제의대) 회원이 “정신분열병 환자에서 생물학적 지표로서 N100, P300과 정량화뇌파의 임상적 적용”으로, 조성준(차의과대)회원이 “Mirtazapine Augmentation Enhances Cognitive and Negative Symptoms in Schizophrenic Patients Treated with Risperidone: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로 각각 우수구연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지난 1년간 대한정신약물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채정호(가톨릭의대) 회원이 “치료 저항성 강박장애 환자에서 반복 경두개자극 치료의 효과와 안전성-개방 연구”로, 이만기(경북의대)회원이 “수면-각성 구조와 뇌파 파워에 대한 Modafinil 및 Methylphenidate의 영향”으로 각각 대정약 학술지 중앙문화의학 최우수논문상을, 김진훈(국립공주병원)회원이 “A Naturalistic Study of High-dose Clozapine Treatment in Refractory Schizophrenia Using a Within-subject Design”로 영문학술지 중앙문화의학 최우수논문상을, 김승준(연세의대) 전공의가 “양극성 조증 환자에서 언어, 얼굴, 장면 감정 자극에 대한 정서 일치 편향 : 정상인 및 정신분열병 환자와의 비교”라는 논문으로 중앙문화의학 최우수 전공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특히 이날 이홍식(연세의대) 고문과 박민철(원광의대) 고문, 박원명(가톨릭의대) 총무이사는 학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상 및 공로패를 각각 수상하였다.

[추계학회]



대한정신약물학회는 2010년도 추계 학술대회를 2010년 9월 10일(금)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7개의 심포지움, 2개의 워크샵과 2개의 luncheon 심포지움, 특강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정신분열병, 조울병, 주요우울장애, 수면장애, 소아, 노인, 위약, 약물유전학 등 정신의학의 여러 분야에 관련된 최신지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심포지움을 마련하였다. 특히, 조울병과 관련해서 세계적인 석학



인 캐나다,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의 Lakshmi Yatham 교수를 초청하여 장기약물치료에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강의를 듣는 시간도 마련하였다. 또한 내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신경정신약물학회를 맞이하여 아시아신경정신약물학회 조직위원회에서 아시아의 석학들을 모시고 특별강연을 듣는 시간도 마련하였다.

이어 거행된 총회에서 한창수(고려의대)회원은 정신약물학 분야에서의 학술적 기여를 인정받아 제9회 대한정신약물학회 오츠카 학술상을, 김원(인제의대)회원은 제8회 오츠카 젊은 연구자상을 수상하였다.

3. 2011년 예정사항

- 2011년도 대한정신약물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일시 : 2011년 3월 18일 (금) 09:00 - 18:00
장소 :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 지하 1층 그랜드볼룸 및 국화룸 (서울역앞)
연수평점 : 6점
- 2011년 9월23-24일(금-토) 아시아신경정신약물학회 학술대회 및 추계학술대회

2010-2012회기 임원워크샵

2010년 8월 13-14일(금-토) 곤지암리조트에서 윤진상 이사장 외 16명의 임원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으며, 향후 학회기금 운용방안 및 재단 설립,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활성화, 학회지 투고 활성화, 2010년 아시아신경정신약물학회 활동에 대해 토론이 있었다.

2011 동계 워크샵

2011년 1월 14일(금) 서울시 역삼동 신흥타워 JSFactory 회의실에서 이사장 외 20명의 임원들이 참가하여 향후 한 안들을 토의하고 임시 상임이사회를 개최한 결과, 학회사 업자 등록을 공식 추진하고, 학회 회기를 1월1일부터 이듬해 12월 31일로 조정하는 방안을 다음 전체이사회 때 최종 승인 받는 것으로 추진하며, 마지막으로 연수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공의 연수교육을 교육이사가, 개원의 연수교육 및 CME 관리는 학술이사가 총괄하기로 하였다.

아시아 신경정신약물학회 서울대회 조직위원회

제2차 아시아신경정신약물학회(AsCNP) 서울 개최

제 2차 아시아신경정신약물학회(Asian College of Neuropsychopharmacology, AsCNP)가 2011년 9월 23(금), 24(토) 양일에 걸쳐 서울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AsCNP 창립 및 제 1차 학술대회는 2009년 11월 13, 14일에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바 있다.

AsCNP의 창립은 대한정신약물학회(KCNP)의 국제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의 결실이었다. 초창기 민성길 교수(전 KCNP이사장, 회장, 현 서울은평병원 원장)는 CINP 및 아

시아 학자들과의 개인적 교류가 있었으며, 2002년부터 4년간 이홍식 교수(전 KCNP이사장, 회장)가 CINP의 membership accreditation 위원회의 장과 CINP Asian chapter의 위원장을 맡으면서 아시아 약물학회 창립의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KCNP는 2010 CINP 학술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2006년 시카고 CINP에 참석(유치단: 김영훈, 권준수, 정인원, 김찬형, 조현상)하여 presentation을 하고 일본, 중국과 유치경쟁을 하였으나 결국 CINP집행위원회에서는 2010년 개최를 Hongkong-China로 결정하였다. 이후 KCNP집행위원회(이사장 김영훈)는 CINP Asian Chapter 위원장인 일본 히로시마 대학의 Yamawaki 교수와의 수차례에 걸친 상호 초청과 회의를 거쳐 2008년 아시아 신경정신약물학회의 창립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2008년에는 권준수 교수가 CINP의 council 위원으로 선출되어 우리학회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 AsCNP는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의 4개국이 중심이 되어 창립되었으며 초대 회장은 일본의 Yamawaki 교수(2009-2010), 2대 회장은 김영훈 교수(2011-2012), 3대 회장은 중국, 4대 회장은 대만에서 맡기로 결정된 바 있으며 점차 동북아 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를 대표하는 학회로 성장할 계획을 세워놓았다. 2010년에는 당시 회장인 Yamawaki교수가 ACNP 및 ECNP, CINP에 AsCNP의 창립을 널리 홍보하고 각 대표 학회의 장들과의 교류를 시작하였다.

2009년 일본에서 개최된 학회에 이어 금년에 개최되는 제 2차 학술대회(Chair: 김영훈 교수, Co-chair 윤진상 교수, 학술위원장 김찬형 교수)는 명실 상부한 종합신경정신약물학회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노력할 것이다. 물론 이번 학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KCNP 집행위원회와 회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 (김찬형, 현 KCNP부이사장, 연세의대)

간행위원회

대한정신약물학회지는 2010년도 21권 1호부터 4호가 정시 발간되어 출간되었으며 22권 1호는 2011년 1월 30일 발간될 예정입니다. 격월로 정시에 발간되고 있는 대한정신약물학회지는 회원들의 연구 결과를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게재할 수 있는 학문 교류의 장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많은 성원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MEDLINE 및 SCI 등재를 지향하고 있는 대한정신약물학회 영문 공식 학술지 Clinical Psychopharmacology&Neuroscience(CPN)는 연 3회 간행되고 있으며 8권 3호가 12월 말에 정시 출간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앞으로도 좋은 영문 원고를 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립니다]

대한정신약물학회는 2011년 1월 19일자로 법인사업자(대표, 윤진상)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정신약물학 관련 뉴스

■ Valproic acid를 제외한 항경련제 계열의 약물 대부분이 비외상성 골절 위험을 높인다.

[방법] 캐나다 캘러리 대학팀은 마니토바주에서 1996~2004년에 발생한 손목, 대퇴골 주변, 추골의 비외상성 골절환자 1만 5,792명을 대조군 4만 7289명과 비교하였고, 약국 판매 데이터를 분석하여 항경련 사용과 비외상성 골절 위험의 관련성을 보고하였다.

[결과] 혼란변인을 조정한 결과, 특히 50세 이상 성인에서 카바마제핀, 클로나제팜(clonazepam), 가바펜틴(gabapentin), 페노바비탈(phenobarbital), 페니토인(phenytoin)등 대부분의 항경련제 사용이 골절 위험 증가와 유의하게 연관됨을 발견하였다. 골절의 위험도(OR)는 클로나제팜 1.24(95% CI 1.05-1.47), 페니토인 1.91(95%CI 1.58-2.30)였다. 반면 Valproic acid는 골절위험도(OR)가 1.10(95%CI 0.70-1.72)로서 유일하게 골절과 연관하지 않았다.

[임상적 의의] 노년기 환자에게 항경련제 계열 약물사용시 비외상성 골절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골다공증의 치료여부를 확인할 것을 강조함.

(출처, Jette N. et al. Association of Antiepileptic Drugs With Nontraumatic Fractures. Archives of Neurology 2011; 68(1):107-112)

■ 2008년까지 비전형적 항정신병 약물의 적응증 외(off-label) 사용이 증가하였다.

[방법] 시카고 대학 연구팀이 약물 처방 처방 패턴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를 기획함. 미국전역의 IMS Health National Disease and Therapeutic Index 데이터에서 무작위 선정한 자료를 분석함. 주된결과(1st outcome)는 약물처방을 위해 방문한 횟수였으며, FDA적응증 없이 처방된 처방횟수를 분석하였다.

[결과] 1995년도 6백만 번 정도(95% CI, 5.4-7.0)의 치료방문 횟수에 비해 2006년에는 천 6백만 이상(95% CI, 15.5-18.2)으로 증가하였다가 2008년에는 천 4백만번(95% CI, 13.0-15.6)으로 감소하였다. 주로 정신분열병에 국한하던 항정신병 약물 처방은 우울증, 양극성 장애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1995년에 4백만 회에 머물던 적응증외 처방건수는 2008년에는 9백만건으로 증가하였다.

[임상적 의의] 보고된 데이터는 2008년까지의 보험 자료를 이용한 것이라는 점에 집중해야 함. 환자, 보호자나 보험관련 종사자 등이 본 연구보고를 언급한다면, 2008년 이후 여러 종류의 비전형 항정신병 약물이 우울증, 양극성 장애 등의 치료에 FDA적응증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야 함.

(출처, Alexander GC et al. Increasing off-label use of antipsychotic medications in the United States, 1995-2008. Pharmacoepidemiology and Drug Safety. 2011; 20(2):177-184)

■ 미국 FDA에서 신약인 빌라조돈을 항우울제 치료제로 승인함.

미국 FDA는 신약평가에서 Clinical Data Inc.에서 제출한 항우울제 Viibryd(성분명: 빌라조돈 vilazodone)를 성인 우울증 치료에 승인하였다. 빌라조돈은 SSRI이면서 5HT1A 수용체의 부분 효현제



(partial agonist)로 작용하는 이중 작용기전을 가진다. Stahl등에 의하면 빌라조돈은 우울증 치료 효능이 있으면서 성기능 부전 등의 부작용이 현저히 적다고 보고하고 있어서 장기유지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

[임상적 의의] SSRI의 순응도를 떨어뜨리는 성기능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항우울제의 도입은 고무적이다. 아직 국내 도입이 되기 이전상태로서 한국인 대상의 효능, 안정성 자료가 필요하다. (출처, ABC뉴스 건강부문 <http://abcnews.go.com>, 2011년 2월 2일자)

국문 및 영문 학술지 투고처 및 편집위원회 주소

[국문]

150-73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61-3, 라이프 오피스텔 1003호

전화 : 02-784-2742, 팩스 : 02-784-5542

E-mail : 편집위원장 채정호 alberto@catholic.ac.kr / 사무실 secretariat@kcnp.or.kr

[영문]

E-mail : 편집위원장 정영철 chungyc@chonbuk.ac.kr / 사무실 secretariat@kcnp.or.kr

▶영문학술지 CPN온라인 논문투고처 : <http://www.cpn.or.kr/submission>





평생회비 납부 안내

2010-2012년 회기 기준

평생회비 납부자 명단 (총 259명)

상임이사 (21명)

윤진상, 박원명, 김찬형, 조현상, 주연호, 민경준, 채정호, 정영철, 이승환, 이중서, 구민성, 한창수, 배치운, 박종익, 서호석, 권준수, 김성곤, 신일선, 이상열, 정범석, 정성훈

회장, 고문, 감사 (8명)

김창윤, 강병조, 이홍식, 윤도준, 박민철, 김영훈, 강대엽, 백기청

비상임이사 (35명)

강웅구, 고영훈, 기백석, 김대진, 김문두, 김세주, 김 원, 김재진, 김지웅, 김희철, 남윤영, 박현국, 반건호, 서정석, 석정호, 신영철, 안용민, 우영섭, 원승희, 윤보현, 이경욱, 이광현, 이만기, 이정구, 이정훈, 이현정, 장인진, 전덕인, 정상근, 정종현, 주은정, 지익성, 천근아, 최중혁, 하규섭

정회원 (195명)

강석훈, 강철중, 광경필, 구분훈, 권영준, 권태완, 김경환, 김광수, 김도관, 김도형, 김도훈, 김 린, 김봉조, 김봉년, 김상현, 김석주, 김성완, 김승현, 김시경, 김영돈, 김영철, 김예니, 김용구, 김용식, 김유석, 김의태, 김 임, 김재민, 김재현, 김정기, 김정란, 김정욱, 김정진, 김중훈, 김진용, 김진훈, 김철권, 김철웅, 김태석, 김태용, 김태호, 김형섭,

김효원, 노대영, 노명선, 문은수, 문현진, 민성호, 박성근, 박성혁, 박영민, 박용범, 박은진, 박이진, 박일호, 박정수, 박지도, 박지홍, 박혜윤, 배승오, 배 안, 백종우, 변은하, 사공정규, 서완석, 서정수, 서천석, 서호준, 성승모, 성형모, 소민아, 손석환, 손인기, 송동호, 송창진, 송후림, 신동원, 신동훈, 신용욱, 신용재, 신윤식, 신철진, 심금숙, 심주철, 안석균, 안은숙, 안주홍, 안준호, 양수진, 양재열, 양종철, 연구월, 오강섭, 오동열, 오병훈, 왕성근, 우성일, 우종민, 유범희, 유승호, 유한익, 유희정, 육기환, 윤 탁, 윤호경, 이경규, 이대환, 이문수, 이미경, 이민수, 이병욱, 이상민, 이상혁, 이선우, 이수영, 이승재, 이승현, 이승희, 이양현, 이영식, 이 은, 이종범, 이종섭, 이종훈, 이준석, 이중선, 이지아, 이창욱, 이철순, 이필규, 이혜원, 이황빈, 이희재, 임세원, 임효덕, 장민정, 장성만, 장순아, 장안기, 장용이, 장재승, 장혜련, 전양환, 전지용, 전진용, 전태연, 정문용, 정봉주, 정석훈, 정성원, 정성훈, 정영은, 정영인, 정영철, 정운선, 정유숙, 정인원, 정재석, 정주호, 정준규, 정철호, 정학재, 정한용, 제영모, 조근호, 조성남, 조수현, 주영실, 진영호, 진용탁, 차경렬, 차보석, 최경숙, 최삼욱, 최상철, 최상현, 최성구, 최순호, 최영훈, 최은영, 최의열, 최정미, 최지욱, 최하석, 하태현, 한상우, 한창환, 함병주, 함 응, 홍경수, 홍승철, 홍진표, 홍현주, 황 걸, 황성식

알 림

본 회보에 게재될 내용이 있거나 새로운 소식과 회원 동정이 있으시면 홍보이사에게 아래의 주소로 우편, FAX, 또는 e-mail로 보내주시면 빠짐없이 회보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덧붙여 회원 명단 중에 실수나 오기로 기록이 잘못된 회원이나 누락된 회원은 연락을 주시면 이후 회보에 수정하여 게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 150-73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1-3 라이프 오피스텔 1003호
TEL : 02-784-2742 / FAX : 02-784-5542 / E-mail : secretariat@kcnp.or.kr
E-mail : hancs@korea.ac.kr 한창수(홍보이사)

• 회원동정 난에는 회원 여러분의 소식을 보내주시기 바라고, 본인이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주위에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